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A Study on the Apprehension inclination and Behavioral Patterns in An-Bang of the Single Detached Urban Dwellings

윤재웅* 이미혜**
Yoon, Jae-Woong Lee, Mi-Hy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ehension inclination and Behavioral Patterns in Single Detached Urban Dwelling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200 housewives who live in D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χ^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n-Bang of the Single Detached Urban Dwellings has been still shown traditional Apprehension inclination.
2. 5 types of Behavioral patterns in An-Bang are identified. 5 types of Behavioral patterns are related with Seating style.
3. Apprehension inclination in An-Bang of the Single Detached Urban Dwellings are related with 5 types of Behavioral Patterns and Seating style.

I. 서 론

주거는 주택 이상의 의미를 갖는 문화적 표현체로서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발전되어 간다.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의 주거는 여러 환경요인들과 더불어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현대 사회가 갖는 특질 중의 하나가 자신의 고유영역에서 아이덴티티를 찾고자하는 것이다. 이는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가속화로 생활양식이 지역적, 세계적으로 단일화, 동질화되어 감에 따

라 고유의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전통주택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인류학적 접근이나 공간론 혹은 형태론적 측면을 다루었을 뿐 거주자의 행위나 의식 등 행태적 측면과 관련시킨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계승이란 옛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용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주거문화의 고유성을 찾는 연구는 생활문화적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 주거공간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행태적 특성과 공간구성적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정회원, 대구가톨릭대 생활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박사과정수료.

우리나라 주거 중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단위공간은 안방이다. 전통주거의 안방은 주거공간의 축소판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활행위가 행해졌으며, 사랑방 소멸 이후부터는 가족공동공간, 부부공간 등 가족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주거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던 안방의 현대적 의미와 성격, 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생활행위를 기반으로 한 거주자들의 공간사용방식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사용방식이란 주공간에 대응하여 발생되는 주생활행위의 양태를 의미하며, 공간의 기능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즉 각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를 파악하는 것(김미희, 1992)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주택의 안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생활행위와 공간 사용행태(조성희, 1987; 전환중외, 1987; 이영호, 1991; 김미희, 1992), 이용행태 특성(김종인, 1995), 안방의 주생활 실태(고도임, 1991; 김미희, 1992; 이미혜외, 2000) 등 이었으나, 최근 도시인들의 이상적 선호주택(민병호외, 1999)으로 파악된 도시 단독주택의 안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단독주택의 안방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지성향과 생활행위의 기반인 공간사용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주생활에 대응하는 안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을 규명한다.
- 2)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공간 사용방식을 규명한다.
- 3)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과의 관련성을 밝힌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의 20-49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유의표집방법으로, 먼저 2000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설문지 20부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예비조사 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0년 2월 14일에서 2월 28일에 걸쳐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300부 배부하여 226부를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조성희, 1987; 김미희외, 1992; 이영호외, 1991; 김종인, 1995)와 관련문헌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어색한 문구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에 관한 문항과 일상생활행위, 비밀상생활행위, 기거양식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안방의 일상생활행위는 행위종류별 발생유무를 근거로 요인분석을 거쳐 유형화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0.65-0.85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밀상생활행위는 행위종류별 발생유무를 파악하였고, 기거양식은 가구의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비교, 요인분석, χ^2 -test 등을 실시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家口)가 가지는 일반사항으로는 가족수, 가족유형, 가족주기, 남편직업, 남편학력, 월평균소득, 주부연령, 주부의 취업유무,

평면규모(평형) 등을 조사하였다(표1).

표 1. 거주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	3명	13(6.5)	교육수준	초등교육기	57(28.5)
	4명	113(56.5)		중고교육기	65(32.5)
	5명이상	74(37.0)		대학교육기	78(39.0)
	계	200(100)		계	200(100)
	평균	4.45	직업	판매서비스	57(28.5)
가	핵가족	180(90.0)		생산직	42(21.0)
	확대가족	20(10.0)		사무직	48(24.0)
	계	200(100)		전문직	29(14.5)
가	100만원미만	3(1.5)	관리직	18(9.0)	
	100-200만원	106(53.0)	계	200(100)	
	200-300만원	70(35.0)	층수	30대	84(42.0)
	300만원이상	21(10.5)		40대	89(44.5)
	계	200(100)		50대	27(13.5)
가	중졸이하	23(11.5)	계	200(100)	
	고졸	116(58.0)	평균	37.35	
	대졸이상	61(30.5)	면적	20평형대	63(31.5)
	계	200(100)		30평형대	85(42.5)
유	133(66.5)	40평형대		52(26.0)	
무	67(33.5)	계		200(100)	
가	계	200(100)	평균	29.5	

분석결과, 가족수는 평균 4.45인으로 4인 가족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가족은 37.0%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핵가족(90.0%)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은 30대(42.0%), 40대(44.5%)가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7.3세였다. 가족주기는 만자녀의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초등교육기 28.5%, 중·고등교육기 32.5%, 대학교육기 39.0%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소득에 있어서, 100-200만원 미만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원이 35.0%로 나타났다. 남편 직업은 판매·서비스직(28.5%), 사무직(24.0%), 생산직(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면규모(평형)는 평균 29.5평으로, 30평형대가 42.5%가 가장 높으나, 20평형대가 31.5%, 40평형대가 26.0%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2.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

안방이 갖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 단독주택 안방에 대하여 거주자들의 인지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실의 호칭과 실에 대한 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안방에 대한 호칭

실의 호칭은 그 시대의 거주자가 지향하고 선호하는 실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Giuliani, 1987)으로서, 호칭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그 대상물의 특징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영호, 1991).

따라서 전통적으로 많이 불리어 오던 '안방'을 오늘날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그림1), '큰방'이 5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안방' (26.5%), '엄마방'(10%), '침실'(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안방'을 가장 많이 호칭하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들(김종인, 1972; 조성희, 1987; 이영호, 1991)¹⁾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 지역과 주택유형, 조사시기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도시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지고 있는 '큰방'이라는 명칭은 전통적인 면에서 모든 가족의 공용공간이며, 주거내의 모든 공간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주인으로서의 격을 의미(강영환, 1993)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면적이 가장 큰 침실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김종인, 1972; 김정규외, 1987; 장상옥, 1996)²⁾ 본연구의 조사 대상자 89%가 타 침실에 비해 가장 큰 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어 '큰방'이라는 호칭은 규모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안방이 타 실에 비해 크다는 것은 과거 가부장 중심에서 유래된 안방 중심의 전통적인 주생활에 익숙해 있던 주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 안방의 경우, 실의 호칭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내재된 의미는 전통적인 주의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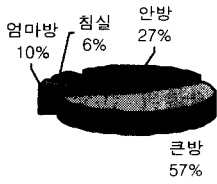


그림1. 안방의 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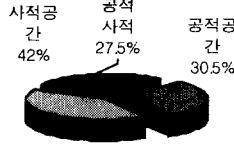


그림2. 안방에 대한 인지

2) 안방에 대한 인지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안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안방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지성향에 따라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이면 '사적(私的)공간', 가족단란+손님접대+주인의 격을 나타내는 공간이면 '공적(公的)공간', 부부의 사적공간과 가족 등의 공적공간을 겸하는 것으로 인지하면 '공·사적(公·私的)공간'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그림2), '사적공간'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적공간'이 30.5%, 그리고 '공·사적공간'이 27.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아파트의 안방이 사실화(私室化)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한 연구(김미희, 1992)와는 차이를 보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미숙외, 1993)의 경우, 안방이 '가족단란+손님접대'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안방 공간을 가족들의 공·사적공간으로 규정한 이영호(1991)의 연구와 대구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종인, 1995)에서는 안방을 공·사(公·私)가 혼재된 공간으로 특징지우고 있어 그 결과와 일치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안방을 사적공간만으로 인지하기 보다는 공·사(公·私)가 혼재된 공간으로의 생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간사용방식

안방에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안방의 주생활행위 유형과 기거양식

유형을 파악하고,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상적인 주생활행위

안방에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단계로 주생활행위들의 발생빈도를 근거로 요인분석하여, 주생활행위에 잠재된 기본적인 차원(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요인분석은 안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26개의 주생활행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 (principal component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수는 주생활행위 발생빈도가 95%이상이거나 5%미만인 행위와 요인분석과정에서 변량의 증가가 둔화되는 요인을 제외하여 최종 16개의 요인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한 결과(표2), Eigen값이 1이상인 요인은 5개로 추출되었는데, 이들 각각은 전체 분산의 30.19%, 11.58%, 10.10%, 8.39%, 6.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5개의 요인은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생활행위의 67%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일상생활행위의 요인행렬표

변인	요인1 손님가족 접대	요인2 가사 생활	요인3 취미 생활	요인4 취미 생활	요인5 휴식 단장	공통 변인비
가장손님	.846	.045	.108	.110	-.001	.742
주부손님	.810	-.015	.074	.133	-.012	.680
친척맞이	.780	.071	-.007	.121	.002	.628
예우손님	.774	.080	.244	.027	-.030	.666
가족친지인	.677	.216	-.021	.087	-.143	.533
차후식	.555	.257	.374	.169	-.081	.549
가족접대	.552	.389	.170	-.051	-.142	.507
바느질	.164	.857	.133	.093	-.097	.797
다를질	.153	.845	.035	.138	.100	.767
여활식사	.181	.020	.866	-.038	.035	.786
겨울식사	.131	.141	.841	.018	-.057	.748
가장취미	.072	.020	.049	.824	-.148	.709
주부취미	.122	.269	.136	.749	-.011	.667
서재연구	.176	-.029	-.226	.568	.201	.445
휴식단장	-.099	-.047	-.013	-.044	.868	.768
화장	-.075	.216	-.019	.036	.818	.723
고유값	4.832	1.853	1.616	1.344	1.069	
분산백분율	30.199	11.581	10.102	8.399	6.682	
누적백분율	30.199	41.781	51.883	60.282	66.964	

요인1은 손님 또는 친척을 맞이하거나 가족들의 모임을 하는 행위로서 「손님·가족담소」, 요인2는 다름질, 바느질을 하는 행위로 「가사생활」, 요인3은 식사를 하는 행위로 「식생활」, 요인4는 부부의 취미생활을 주로 하는 행위로 「취미생활」, 요인5는 몸단장, 화장을 하는 행위로 「몸단장」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단계로, 요인들의 발생빈도를 근거로 주생활행위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들의 발생빈도에 따라 안방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생활행위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생활행위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범주는 발생유무 두가지 경우이다. 따라서 요인이 5개였으므로 2⁵ 즉 32개의 유형이 성립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에서는 18개의 유형이 발생하였으나, 18개의 유형 중 그 분포비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3순위까지의 유형들을 대표로 선정하였다(표4).

「유형 I」은 ‘몸단장+가사생활’로, 전체의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II」는 ‘몸단장+취미생활+손님·가족담소’로 그 분포가 36.5%이다. 「유형 III」은 ‘몸단장’으로, 24.3%이다.

표 3. 대표적인 일상생활행위 유형의 분포³⁾

분류	발생행위	N(%)
유형 I	몸단장+가사생활	74(39.2)
유형 II	몸단장+취미생활+손님·가족담소	69(36.5)
유형 III	몸단장	46(24.3)
계		189(100)

이상과 같이, 도시 단독주택 안방에서는 몸단장인 개인생활이외에 가사행위, 손님·가족담소 등의 공적 행위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의 안방을 주로 부부침실로 이용한다는 김미희외(1992)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안방공간을 가족들의 공·사적공간으로 규정한 이영호

(1991)⁴⁾의 연구와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의 안방은 아파트에 비하여 부부의 사적행위와 더불어 가족의 공적인 행위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안방이 갖는 다목적 기능이 도시 단독주택에서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밀상적인 생활행위

비밀상적인 행위는 관혼상제(冠禮, 婚禮, 喪禮, 祭禮)의 의례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제사, 가족의 생일, 종교적 의례인 가족예배 등의 행위를 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단독주택에서 비밀상적인행위의 발생을 실별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 4. 비밀상적인 행위의 발생분포 단위;N(%)

행위	안방	거실	기타	계
제사행위	77(59.3)	41(31.5)	12(9.2)	130(100)
부부생일	75(37.5)	122(61.0)	3(1.5)	200(100)
자녀생일	49(24.5)	107(53.5)	44(22.0)	200(100)
종교의식	39(39.8)	51(52.0)	8(8.2)	98(100)

제사행위의 경우, 안방(59.3%)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생일잔치등 가족적인 기념행사나 종교의식은 거실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방에서도 24.5-39.8%가 행해지고 있어, 이에 안방에서 일어나는 비밀상적인 행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 5. 안방의 비밀상적인 행위의 분포

비밀상생활행위		N(%)	계 N(%)
유	제사행위	42(21.3)	134(68.0)
	생일행사	38(19.3)	
	종교모임	6(3.0)	
	제사+생일	15(7.6)	
	생일+종교	13(6.6)	
	제사+종교	9(4.6)	
무	제사+생일+종교	11(5.6)	63(32.0)
	전혀 없음	63(32.0)	
계			197(100)

제사행위만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일행사는 19.3%, 제사행위+생일행사는 7.6%, 생일행사+종교모임은 6.6%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방에서 비일상적인 행위의 발생이 전체의 6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도시 단독주택에서 안방이 의식적 공간, 가족공동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거양식

기거양식이란 기거행동에 관한 것으로 좌식과 입식이라는 생활행위시 신체 자세의 측면을 의미(장상욱, 1996)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즉, 좌식형 가구만을 사용하고 있으면 '좌식형', 좌식형과 입식형 가구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절충형', 입식형 가구만 사용하여 생활하고 있으면 '입식형'으로 분류하였다.

도시 단독주택 안방의 기거양식 유형분포를 살펴보면(그림3), 좌식형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절충형(28.0%), 입식형(15.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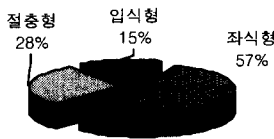


그림3. 안방의 기거양식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 안방이 입식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한 장상욱(1998)⁵⁾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주택유형과 소득수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 안방에서는 좌식생활의 지속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4)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표6), 기거양식이 좌식형에 있어서 일

상생활행위는 「유형 I」과 「유형 II」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충형은 「유형 I」, 입식형은 「유형 III」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었다(p<0.001). 또한 비일상적인 생활행위는 좌식형에서 발생빈도가

표 6. 주생활행위와 기거양식

주생활행위	기거양식	기거양식			
		좌식형	절충형	입식형	계
일상 생활 행위	유형 I	44 (23.3) 42.3	26 (13.8) 20.8	4 (2.1) 11.0	74(39.2)
	유형 II	46 (24.3) 39.4	15 (7.9) 19.3	8 (4.2) 10.2	69(36.5)
	유형 III	18 (9.5) 26.3	12 (6.3) 12.9	16 (8.5) 6.8	46(24.3)
	계	108(57.1)	53(28.0)	28(14.8)	189(100)
	통계값	$\chi^2=23.430$ df=4 p<0.001			
비일상 생활 행위	비발생	26 (13.2) 36.1	23 (11.7) 17.6	14 (7.1) 9.3	63(32.0)
	발생	87 (44.2) 76.9	32 (16.2) 37.4	15 (7.6) 19.7	134(68.0)
	계	113(57.4)	55(27.9)	29(14.7)	197(100)
	통계값	$\chi^2=10.168$ df=2 p<0.01			

가장 높았다(p<0.01).

이것은 절충형과 입식형의 경우, 좌식형에 비하여 가구의 양적 증가 또는 침대 사용으로 인하여 가구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점유율이 높아 공간활용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기거양식과 안방의 주생활행위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과의 관련성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표7), 비일상생활행위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 실의 호칭은 '큰방'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며(p<0.01), 실에 대한 인지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p<0.05).

좌식형에 있어서는 호칭이 '큰방'과 '안방'으로

표 7. 안방의 인지성과 공간사용방식

공간사용방식		실외 공간				실내 공간 인지			
		안방	침방	기타	계	사적	공·사적	공적	계
안방 생활 행위	유형 I	16 (8.5) ^a 19.6 ^b	49 (25.9) 41.9	9 (4.8) 12.5	74(39.2)	33 (17.5) 31.7	14 (7.4) 19.2	27 (14.3) 23.1	74(39.2)
	유형 II	20 (10.6) 18.3	38 (20.1) 39.1	11 (5.8) 11.7	69(36.5)	24 (12.7) 29.6	22 (11.6) 17.9	23 (12.2) 21.5	69(36.5)
	유형 III	14 (7.4) 12.2	20 (10.6) 26.0	12 (6.3) 7.8	46(24.3)	24 (12.7) 19.7	13 (6.9) 11.9	9 (4.8) 14.4	46(24.3)
	계	50 (26.5)	107 (56.6)	32(16.9)	189(100)	81(42.9)	49(25.9)	59(31.2)	189(100)
	통계값	$\chi^2=7.043$ df=4				$\chi^2=7.234$ df=4			
비일상 생활 행위	비발생	17 (8.6) 16.9	28 (14.2) 35.5	18 (9.1) 10.6	63(32.0)	31 (15.7) 26.5	21 (10.7) 17.3	11 (5.6) 19.2	63(32.0)
	발생	36 (18.3) 36.1	83 (42.1) 75.5	15 (7.6) 22.4	134 (68.0)	52 (26.4) 56.5	33 (16.8) 36.7	49 (24.9) 40.8	134(68.0)
	계	53(26.9)	111(56.3)	33(16.8)	197(100)	83(42.1)	54(27.4)	60(30.5)	197(100)
	통계값	$\chi^2=10.053$ df=2 p<0.01				$\chi^2=7.422$ df=2 p<0.05			
기거양식	좌식형	28 (14.0) 30.2	71 (35.5) 64.4	15 (7.5) 19.4	114(57.0)	47 (23.5) 47.9	29 (14.5) 31.4	38 (19.0) 34.8	114(57.0)
	절충형	19 (9.5) 14.8	31 (15.5) 31.6	6 (3.0) 9.5	56(28.0)	27 (13.5) 23.5	14 (7.0) 15.4	15 (7.5) 17.1	56(28.0)
	입식형	6 (3.0) 8.0	11 (5.5) 17.0	13 (6.5) 5.1	30(15.0)	10 (5.0) 12.6	12 (6.0) 8.3	8 (4.0) 9.2	30(15.0)
	계	53(26.5)	113(56.5)	34(17.0)	200(100)	84(42.0)	55(27.5)	61(30.5)	200(100)
	통계값	$\chi^2=19.111$ df=4 p<0.001				$\chi^2=3.773$ df=4			

a:사례의 빈도 (전체 백분율) b:기대빈도

많이 불리워지고 있으며, 절충형은 '큰방'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p<0.001).

이상에서와 같이 호칭에 있어 '큰방'으로 불리는 경우, 비일상생활행위가 가장 높게 발생되었으며, 기거양식은 좌식생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IV. 결 론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에 있어서, 먼저 호칭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워지던 '안방'보다는 '큰방'으로 더 많이 명명되고 있다, 큰방이라는 명칭이 전통적인 면에서는 주거내의 모든 공간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주인으로서의 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칭의 경우, 전통적으로 많이 불리워지던 '안방'이 '큰방'이라는 호칭으로 변화를 가져왔으나,

의식저변에는 전통적 '안방'이 갖는 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의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안방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부분만의 사적(私的)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단란, 손님접대 등 공적(公的)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公·私) 혼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인지성향에 있어서 안방은 주거 내의 중심 공간이며, 공·사적(公·私的)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통적 주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도시 단독주택 안방의 공간사용방식은 있어서, 주생활행위는 취침을 제외한 손님·가족답소, 가사생활, 식생활, 취미생활, 몸단장 등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주생활 행위유형은 '몸단장+가사생활', '몸단장+취미생활+손님·가족답소', '몸단장' 등 3가지로 규명되었다. 그리고 비일상적인 생활행위는 안방에서 68%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거양식은 좌식형

이 57%, 절충형이 28%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 단독주택 안방은 다목적 생활기능과 의식적 공간으로의 지속이 과반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좌식생활의 기능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3.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안방의 호칭은 비일상생활행위와 기거양식이,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은 비일상생활행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큰방'으로 불리는 경우, 비일상생활행위가 가장 높게 발생되었으며, 기거양식은 좌식생활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날 도시단독주택에서 '안방'은 그 인지성향에서나 공간사용방식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

- 1) 조성희(1987); 조사대상은 서울의 전통한옥, 단독주택, 아파트이고, 평면규모는 3침실형이상이며, 이영호(1991); 조사대상은 부산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이며, 평면규모는 각각의 평균 43.4평, 32평이다.
- 2) 김종인(1972); 실호칭의 구분을 기능상(침실), 형태상(큰방), 위치상(안방), 소유형태상(엄마방) 등으로 하였으며, 김정규외(1987); 안방의 선택기준이 규모가 가장 크고, 남향인 이유에서 선택한다(88%)고 하였다. 장상옥(1996); 부부의 경우 94.6%가 큰방(침실1)에서 취침한다고 하였다.
- 3) 높은 순위부터 3순위 까지를 선정했을 경우 나머지 유형의 비율이 누락되어 살계수가 적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정된 3가지 유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은 각각의 유형에 할당시켰다.(김미희, 1992. 인용)
- 4) 이영호(1991); 현대도시주거 안방에서의 취침을 제외한 가족식사, 응접, 가족단란행위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아파트에 비하여 안방집 중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 5) 장상옥외(1998);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의 아파트로서, 남편학력이 대졸이상(87.3%)이며, 직업은 화이트 칼라 범주, 월평균소득은 2,984,180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방의 침대보유율은 69.1%, 입식화장대의 보유율은 56%이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1993).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204-206
2. 고도임(1991). 경기도 농가 안방 공간에서의 주생활 변화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경재(1999).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호 3-9
4. 김미희(1992).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 대한건축학회지 제8권(10) 25-39
5. 김정규 · 윤장섭 · 이광노(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7권(2) 141-
6. 김종인(1995). 도시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1권(1) 17-25
7. 민병호, 채해성(1999). 국내 4가지 대표적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동향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15권(9) 31-40
8. 이미혜 · 윤재웅 · 장석하(1999). 아파트 안방의 주생활행위와 가구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4) 137-146
9. 이영호(1991). 한국도시주거의 안방에 관한 행태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임미숙(1993).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주의 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9권(1) 3-11
11. 장상옥(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장상욱·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지 제14권(1) 39-50
13. 전한종·박용환(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 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3(3), 81-92
14. 조성희(1988).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